

이름:

날짜: 2025년 5월 24일

아래 제시된 지문을 읽고 15분간 진행되는 면접 시간에 이어지는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정답은 없지만 논리적이고 성숙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답안지는 생각을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것으로, 별도의 답안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책의 탄생 장소는 보르헤스의 텍스트이다. 보르헤스의 텍스트를 읽을 때, 우리에게 존재의 무질서한 우글거림을 완화해 주는 정돈된 표면과 평면을 모조리 흩어뜨리고 우리의 매우 오래된 관행인 동일자와 타자(他者)의 원리에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오래도록 불러일으키고, 급기야는 사유, 우리의 사유, 즉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지리(地理)가 각인되어 있는 사유의 친숙성을 깡그리 뒤흔들어 놓는 웃음이다. 보르헤스의 텍스트에 인용된 “어떤 중국 백과사전”에는 동물이 a) 황제에게 속하는 것, b) 향기로운 것, c) 길들여진 것, d) 식용 짐승이 돼지, e) 인어, f) 신화에 나오는 것, g) 풀려나 싸대는 개, h) 지금의 분류에 포함된 것, i) 미친 듯이 나부대는 것, j) 수없이 많은 것, k) 아주 가느다란 낙타털 붓으로 그린 것, l) 기타, m) 방금항아리를 깨뜨린 것, n) 멀리 파리처럼 보이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이로운 분류에서 누구에게나 난데없이 다가오는 것, 교훈적인 우화의 형식 덕분에 우리에게 또 다른 사유의 이국적인 매력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의 사유가 갖는 한계, 즉 그것을 사유할 수 없다는 적나라한 사실이다.

—미셸 푸코, 『말과 사물』 (1966) 중에서

1. 밑줄 친 “우리의 사유, 즉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지리가 각인되어 있는 사유의 친숙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2. 1번 답에 근거하여, 위 글의 내용을 자신의 말로 쉽게 요약해 보세요.
3. 이 글의 주요 요지를 음악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